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나무를 나무처럼 산을 산처럼 화폭에 담다 '윤명호' 작가

당신은 누구인가요?

한국화를 전공하고 이름은 윤명호이고 아호는 백당이라고 합니다.

설경 산수화를 그리게 된 계기?

처음에 거의 50대까지는 옛날 전통 산수화를 관념적으로 강가에 배 띄우고 하는 것이 하도 오래 하니 식상할 뿐만 아니라 뭔가 현대에 와서는 달라져야 한다. 하는 생각도 있어서 다시 공부하는셈 치고 실경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경을 하면서도 채색이 많이 들어간 스타일이 있고 먹으로만 하는 스타일이 있고 완전 채색으로만 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사실적인 것에 가깝게 먹과 색을 사용하면서 해보자 하고 그걸로 전시작품도 하고 개인전도 하려고 80여 점 정도 만들어 뒀었어요.

작품을 대하는 마음가짐?

지금도 어디 틀에 얽매이기를 싫어하거든요. 내가

그 어떤 작품을 해야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종전에 내가 알았던 것을 싹 잊어버리고 그냥 무로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내가 이것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그때 또, 생각을 해요.

붓을 잡기 전에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또 붓을 잡고 또 해놓고 나서 전에는 붓을 잡으면 뭘 모르니까 그랬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을 냈다고요. 이 한국화는.

그런데 지금은 절대로 중간에서 한번 붓을 놓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지요.

그게 이 선 하나, 획 하나에 책임감을 가지고, 그때 그때 마다 스타일이랄까 무엇이 다 조금씩 달라져요. 기법이라든가 소위 60년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러는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던지 하는데 항상 왜 내가 이것을 그려야 하고 왜 라는걸 꼭 집어넣고 어떻게 왜 어떻게를 그게 머리 속에 항상 잠재되어 있지요.

벽화를 그리게 된 계기?

우연히 내 집 벽에다가 내 집 벽만 하다가 보니까 또 앞집에서 우리 집도 해줘요. 하다 보니까 이게 동네 사업이 되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으면 소위 작가가 그림 좀 그린다는 사람들이 그 벽화를 하면 훨씬 우리 문화 수준도 좋아지고 보기가 좋아질 것이다 싶어서 한번 내가 그걸 시도를 해봤지요. 한국화하는 사람으로서 페인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할 판인데 시도를 해보니까 처음 쓰는 재료지만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또 하면서 재미가 있어. 이게 일단은 화판이 커.

나는 항상 어떻게 하면 큰 대작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어도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벽면이 크니까 작업하는 맛도 있고, 또 똑같은 소재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 이제 다른 소재를 찾고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동네 전체가 다 이루어졌죠.

기억에 남은 벽화작업?

작년에 완주문화재단에서 벽화 보수작업을 했잖아요.

동상면 면사무소 앞에 그 벽면이 커서 거기 감나무는 진짜 감나무만 해요. 조금 시간이 넉넉히 주어져

고 좀 더 깊이 있게 더 그렸으면 싶다는 아쉬움은 있어도 일단은 큰 작품을 해본다는 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청우현 화재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 80여점 전시를 하려고 마지막 내 인생 피날레 전시라는 기분으로 그 80점 그림이 홀라당 타버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참 청소 한번 완전히 깨끗하게.

어떤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분이 탁 들어요. 뭔가 새롭게 한다는 그 어떤 신의 계시같이 기분이 뭐 딱 벼락 맞은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웃고 나중에는 좋아서 웃었어요.

무엇인가 훌훌 털고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감이 딱 들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나는 새로움이 즐겁다?

뭔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자체가 좋아요. 내가 지금 여기 유화를 하는 것도 뭔가, 뭔가 얻어지려면 다른 장르도 알아야겠더라고요. 해보니까. 내가 이걸 하면서 세세하게 상당히 공부했어요.

유화는 유화대로 맛이 있고 색과 먹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색만 가지고 하면 쉬워요. 먹만 가지고 해도 조금 편해요. 그런데 색과 먹을 같이 사용할 때 먹을 빼면 안 된다고요.

한지에 먹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통성이고 상당히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 먹이거든요.

먹은 먹대로 살려서 채색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내 과제라 생각해요.

백당 윤명호 팔십전?

내년이면 팔십이 돼요.

내후년까지 81세까지는 80세로 봐야 한다고요. 만으로 치면 80세니까 팔십전 이라는 것이.

화가가 팔십전을 한번 한다는 건 큰 자랑이고 그만큼 장수를 했다는 얘기고 자기 인생의 정리이니까 그러면서 화집다운 화집을 하나 발간하고 내 족적을 남겨 놓고 가는 모습으로 그 전시를 해야겠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소재를 어떻게 하고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가 생각해요.

완주에서 예술가로 산다는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지만 공기 좋고 물 좋고 또, 이번에 나 사는 상관면 말고도 완주군 벽화작업을 하면서 여러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참 인심도 좋고 여기서 살고 싶다는 동네들이 많아요.

완주군이 그 전에 젊었을 때 많이 돌아다녀 보고 스케치하느라 여행도 많이 해봤지만, 완주군은 참 사람 살기 좋은 곳이다. 완주군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커요. 완주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